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1)

이 정업 목사
(뉴비전교회/214-534-7141)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양자택일의 질문은 “네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래?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래?” 이것이다.

첫 번째 선택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삶이다. 사실 오늘의 사회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다. 직장 생활 하면서 주인과 상사와 고용주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조만간 미움을 사서 쫓겨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 나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만족을 채워주며 사는 것이 경쟁 사회생활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과 선택이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신앙의 모습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가운데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가장 전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마 6:1) 사람들은 외적 모습만을 보고 속아 칭찬해 줄 것이지만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상을 얻지 못하는, 전혀 상이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는가? 초신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을 흠모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지” 그러는 것이다.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인정과 보상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을 속이는 일에 점점 고수가 되어가는 사이비들이 생기고, 주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정된 문제이겠는가! 우리 모두에게 수시로 나올 수 있는 자기의, 자존심, 죄인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의외로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상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할 것은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상이 아니겠는가!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제발 하나님 눈치 좀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겠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나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 앞에서 마음과 중심과 삶을 바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마음과 구체적인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술수를 쓰고 비위를 맞추고 머리를 굴리면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그에게 주실 상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변질시켜 전한다면 그를 어찌 예수님의 종이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종일 따름이다. 작은 일 하나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세와 목적으로 섬기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자!